

# 꿀벌 폐사 해결책 찾는다

### 민관합동 협의체 가동...양봉농가 '응애' 피해 발생 벌 17.5% 사라져 사육밀도 관리·밀원 확보 등 논의...양봉입식비 연장·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꿀벌 폐사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양봉업계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올해 들어 광주와 전남에서는 꿀벌 60%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양봉농가 구원에 투입하기로 한 약 500억원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부터 발생한 꿀벌 폐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양봉농가에서는 꿀벌이 봉군에서 사라지거나 세력이 약해지는 폐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1~2022년 동절기 이어 월동 중인 2022년 9~11월에는 내성 응애 폐해가 발생했다.

응애는 꿀벌 전염병인 꿀벌응애감염증을 일으키는 해충이다.

이 때문에 농촌진흥청 표본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2023년 월동 후에도 월동 전과 비교해 약 17.5%의 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로 월동 중 약 15%의 꿀벌이 소실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평년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벌꿀 농가 168곳 중 156(92.9%)곳에서 꿀벌이 사라지는 폐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도 농가 2169곳 중 2042곳(94%)에서 폐해가 발생했다.

벌통 수만 놓고 보더라도 60% 넘는 벌통에서 폐해가 발생하는 등 지난해와 견줘 1.6배 증가했다.

한국양봉협회와 생산자 단체 등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기상여건이 양호해 꿀벌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폐해가 큰 농가의 경우 봉군 세력이 회복에 집중하느라 봄철 채밀을 뒤로 미룬 곳도 여럿이다.

이번에 꾸러지는 협의체는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해 25명 내외로 꾸러진다.

협의체는 사육현황 조사 방법을 비롯한 기초통계 구축 방안부터 사육밀도 관리, 밀원 수 확보 방안, 농약·살충제 등이 양봉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폐해가 이어지고 있는 양봉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인 지원책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개선, 양봉농가에 1%대의 저리로 정책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농축산경영자금을 통해 양봉입식비를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농진청, 검역본부, 산림과학원 등과 오는 2030년까지 484억원을 투입, 다부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응애 등 병충해 발생 간 관계를 규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사양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림청 등과 협업체 연차적으로 밀원(蜜源)수를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꿀벌 폐해 조기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응애 방제약품을 조기 지원했으며, 지자체별 입식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 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직접 만나 필요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양봉산업과 관련된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해 햇마늘 첫 산지 경매 지난 12일 고흥 녹동농협 산지공판장에서 올해 첫 햇마늘 경매식이 열렸다. 녹동농협 산지공판장은 전국 유일의 주대마늘 산지 경매장으로,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산지유통 허브 역할을 통해 전남 마늘의 수급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녹동농협은 주대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매실 등 경매품목을 통해 올해 40여억 원 취급실적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산지공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농협 제공>

## 싸고 맛 좋은 B급 '못난이 농산물' 불티

### 롯데마트, 생채기 무 990원 판매 CU, B급 '싱싱상생' 브랜드 출시

농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채기 난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계도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른바 'B급 마케팅'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에 나섰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무 가격은 지난 겨울철 한파 피해로 생산량이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 도매가격은 20kg 기준 1만9200원으로 작년보다 5832원 비싸고 평년보다도 6581원(5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14일까지 전점에서 '정부비축 제주 상생무'를 판매했다. <사진> 정부비축 제주 상생무는 시중에 유통되는 '특' 등급의 상품과 비교해 크기가 작거나 생채기가 난 상품이다. 판매 가격은 990원으로 최근 시중 무 가격(개당 2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편의점 CU 'B급 채소' 브랜드 '싱싱상생'을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규격 외 등급을 받아 폐기되는 농산물이 평균 11.8%에 달한다. CU는 싱싱상생 브랜드로 농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사 상품보다 30~40%가량 저렴해 고물가 시대 소비자 부담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U는 첫 번째 상품으로 파프리카와 깻마늘, 감자 등 3종을 매장에서 판매한다. 이달 중 오이와 애호박 등을 추가로 출시하고 상품 가짓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싱싱상생 브랜드의 제품 가격은 2주 간격으로 농산물 시세를 반영해 정한다. 시세가 내려가면 가격을 낮추고, 오르면 인상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식자재 유통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로 농산물 유통 플랫폼 에스어스와 함께 일반 상품보다 5~10% 저렴한 실속형 업체류 상품을 각 업체에 공급한다.

삼성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실속형 업체류는 시금치, 적상추, 부추 등 12종으로, 잎 크기가 균일하지 않거나 작은 상처가 있는 농산물이다.

삼성웰스토리는 재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급식 업체와 외식 업체에 실속형 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할랄 인증 한우 첫 수출

### 말레이시아 업체와 1호 계약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 할랄 한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국내 수출업체와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간 1호 계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말레이시아 유통·외식업체 등 관계자들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맛을 알리고자 행사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을 위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말레이시아와 검역 협상을 진행해왔고,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자킴(JAKIM)은 올해 3월 국내의 한 도축장을 할랄 전용 도축장으로 승인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 계약을 토대로 한우 수출량이 앞으로 3년간 총 1875t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할랄 인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에도 한우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한우 고기의 운송, 보관, 유통 등의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 고기에 표시하는 사항이 세계 각국에서 통일되도록 수출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침을 제시하고, 현지 소매점에는 한우 유통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상품에 부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농협 광주본부, 청년농업인 육성 현장 교육

### 신소득 작목 재배 정보 공유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고성신)는 지난 11일 광주농업기술센터, 지역 청년 농업인과 함께 영광군 연산면에 위치한 망고야농장을 방문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선진지 농업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영농정착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된 이날 현장 교육에는 고성신 본부장, 김시라 소장과 청년농업인 10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신소득 작목 재배에 대한 경험과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 및 기호 변

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 선택 방법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연구 ▲철저한 시장 분석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 등 청년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교육에 참여한 한 청년농업인은 "영농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는데,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성신 본부장은 "농업 지속발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신소득 작목 재배 지원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득, 변경가

문의. 010-3605-5000